

제12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6월 정기) 녹취록

회 의 명	제12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일시장소	'23. 6. 26.(월) 14:00~, 3층 회의실
참 석 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7), 도경 과계장, 심의안전 담당 과계장
부의안전	도경 보고 5건, 심의안전 4건

위원회 개최

위원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심의안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도경찰청 보고, 위원회 보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성의 있는 회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12차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도경찰청 업무보고입니다. 도경찰청에서는 여름 피서기 대비 범죄예방 활동 계획 등 5건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진행 절차를 조금 조정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는 보고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일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또 계장님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할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형식으로 보고할 때마다 질의 마치고 나서 종결하고 나니 시간이 좀 더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진행 절차가 좀 바뀌었다는 점을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경찰청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경찰청 보고(5건)

1. 여름 피서기 대비 범죄예방활동 계획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생활안전계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계장 김동현입니다.

2023년 여름 피서기 대비 범죄 예방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이 나고 현재 대외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면 저희들 동네 해수욕장이라든지 교육 등에 청년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일이 신고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112 신고 인원에 대해 지난해를 한번 보면은 6, 7, 8월달에 좀 이렇게 한 9만 건, 10만 건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04만 건 정도 되는데 월 평균 한 8만 건에서 7만 건 이렇게 되는데 여름철에 좀 더 신고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은 신고는 특히 여름철,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간은 6월 20일부터 8월 20일 2개월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개장하는 데 많은데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주요 피서지 주변 중점으로 해서 CCTV라든지 화장실, 비상벨 이런 방법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또 노후화된 데가 없는지 고장이 난 데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미리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각 경찰서별 112 신고 현황이라든지 또 범죄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119에 신고 들어온 많은 장소 또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측정해서 또 그 지역에 맞는 지역별 장소에 맞는 문제 유형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 예방 대책 수립을 각 경찰서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CCTV라든지 비상벨이 노후화 되거나 오작동 시설물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수리하고 교체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탄력 순찰하고 협력 치안활동인데 저희들이 이제 해수욕장 캠핑장 같은 주요 장소 캠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 정기적으로 각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순찰 노선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특히 취약한 지역 특히 성범죄가 우려된다든지 또 주로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탄력 순찰 지점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한 20분 30분씩 거점 근무도 하고 또 주변 순찰도 돌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 방법대가 새롭게 이렇게 편성이 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도 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공동체 치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파출소를 세 군데 운영했습니다. 거제 학봉, 통영의 비진도,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쭉 딱 여름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치안 수요를 보면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가 한 건 아니면 두 건이 들어옵니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점에는 교통 불편이라든지 소란신고가 들어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지 않고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탄력 순찰하면서 112 신고 대응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해수욕장 피서객들 안전관리 부분은 지자체, 소방에서 별도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기관들과 주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올 여름 피서철 잘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경찰청 피서기 대비 범죄 예방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궁금한 점이라도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수 위원) 예 윤창수 위원입니다. 익사자 예방과 관련해서 바다에서 익사자에 대해 해경하고 협조는 어떻게 되는가요

생활안전계장) 지금 익사자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해경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수 위원) 바닷가 초소에 상주하면서 혹시 익사자 예방 감시하지는 않나요

생활안전계장) 익사자 예방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안전 구조 요원들 계약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수 위원) 80년대 때는 경찰이 직접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생활안전계장) 실제로 과거에는 일체의 예산 지원이 없어 그냥 사실 경찰관들이 그냥 몸으로 가서 배웠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 지원이 안 되고, 또 안전 부분은 지자체의 어떤 책임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이거와는 크게 관련성은 없겠습니다마는 함안에서 낙화 축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안전 관련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 수립된 것이 있는가요

생활안전계장) 1차적으로 주무 부서는 지방청 대테러 부서라고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실수가 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축제에는 충분하게 사전 대비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규정 위원) 경남이 방법수요가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지 않고 탄력순찰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안전계장) 실제로 방문 수요가 다른 데 보다 많다고보다는 저희들이 여름 파출소는 한 거의 2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소방이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책임 권한이 없었고 해경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파출소를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바다 같은 해수욕장은 해경, 계곡은 소방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들은 범죄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년 동안에 이렇게 여름 파출소 운영 실적을 보면 112 신고라든지 범죄 신고 건수가 하루에 1건이나 2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직접 예산을 두고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요즘 위낙 또 신고 체계도 잘 돼 있고 대응 체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규정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경찰관서가 상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범죄 예방의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생활안전계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판단을 할 때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의경이 올해 없어졌는데, 의경들을 지원 받거나 의경들이 지원이 안 되면 직원들 기동대 지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련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원을 빼가지고 다시 여름파출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치안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 탄력순찰로 범죄 대응이 되기 때문이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번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규정 위원) 신고건수가 작은 이유가 여름파출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적인 방범 활동을 하였기 때문은 아닌가요

생활안전계장) 저희들이 어떤 쪽을 집중할지가 중요한데, 이게 1년의 어떤 통

계가 아니고 5년 치 통계를 봤을 때 탄력순찰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규학 위원) 고규정 위원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자율방범대, 우리 동네 파수꾼 등 협력단체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활동하는 코스가 있을 것 같아요. 협력단체가 하는 부스에 플랜카드를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계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름파출소 폐쇄와 관련해서 경남 외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안전계장)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각 경찰청에서 자체 치안 수요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또 각 경찰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청 중에 10개 청은 지금 여름 파출소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그래도 기존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운영하던 여름 파출소가 없어졌을 때 불안해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생활안전계장) 최근에 야영객들이 피서객들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성향을 보면, 가족, 친구 등인데, 요즘 피서 문화는 소음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를 하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저희들이 신고가 줄어드는 이유도 어떤 문화 의식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포장 마차를 만들고 심지어 나이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던 그런 과거하고는 정말 많이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 변화에는 항상 어느 정도 긴장은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제도 변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점을 항상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전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추가 질문 없습니까?

위원들) 예 없습니다.

2. 경상남도경찰청 자율방법대 관리규칙 폐지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위원장) 두 번째로 경상남도 경찰서 자율 방법대 관리 규칙 폐지 관련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안전계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찰청 자율 방제 관리 규칙 폐지 관련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자율 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상남도 지방경찰청 자율 방법대 관리 규칙은 98년 5월 26일에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자율방법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 그런 근거로 쓰여왔습니다만 이제 관련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심의 의견을 통해 심의되면 저희들이 해지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에 대해 질의 있는 위원들 있습니까

고규정 위원) 관련 법 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거기에 서 담지 못한 내용을 혹시 우리 내부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은 없는가요

생활안전계장) 자율 방법대 자체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서 입법화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필요한 근거라든지 또 자율방법대 연합회 측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알고, 제가 또 이렇게 규칙을 보고 시행령을 봐도 자율 방문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렇게 빠진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세 번째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2023년 상반기 경남청 유실물 공매 시범 실시 결과

-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

위원장) 2023년 상반기 경남청 유실물 공개 시범 실시 결과 보고입니다.

생활질서계장) 예 반갑습니다. 생활 질서계장 입니다.

먼저 23년 상반기 경남청 유실물 공매 시범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유실물 시범 실시를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실물을 운영하는 청이 전국 7개입니다. 그 중 저희 청을 포함해서 나머지 청에서는 유실물센터를 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각 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수량이 적고, 또 감정 매각이 어렵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감사에도 매번 지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각 사업별로 실시하던 국고 귀속 업무를 청에서 주관으로 해서 연 2회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업무의 현장에는 업무가 경감이 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경남청 유신 공로의 시범 실시 결과입니다. 공모 대상은 로스트 112에 접수된 9개월 경과한 습득물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마트워치라든지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 시계 반지 귀금속 국가지도 이런 것들이 근무 실시가 됐습니다. 총 215건이었고요. 진행 과정은 경남청에서 유실물 창고에서 취합을 일단 하고 전자기기 등은 초기화 조치를 하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출장 감정을 받아서

공비드 경매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입찰에 41명이 참여했고 770만 원이 최고가 낙찰이 되었고 매각 비용을 제외하고 한 650만 원가량을 국고 귀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경에도 이와 같이 시범 실시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실물 공개 절차는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서 단위로 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 형식으로 많이 했을 거 같은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4. 2023년 이륜차-PM 단속 결과

-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장

위원장) 네 번째 2023년도 2주차 pm 단속 결과입니다.

교통안전계장) 반갑습니다. 도경 교통안전 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자경위 7차 회의 23년 3월 28일 차 2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4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까지 59일, 약 2개월간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고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고가 총 410건 발생해 사망이 16명, 부상이 484명입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신호 중심에서 안전모까지 해서 12,568건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안전에 상정된 이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사망이 총 6명입니다.

교통사고는 195건에 6명이 사망했고 단속은 한 5,900여 건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이동장치 pm입니다.

pm은 저희들이 지난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또한 4월 3일부터 5월 30일도 마찬가지로 사망 사고는 없고, 부상 32명 4월 3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는 부상 16명입니다.

대신 단속은 저희들이 의결 상정 이후로부터 530건을 단속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3차 테마 단속을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또 이륜차 단속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여름 휴가철 특별단속 계획도 지금 7월에 수립해서 단속 예정입니다.

아울러 2륜차 pm 단속 우수 경찰관서 포상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진혁 위원) 이 통계는 운전자하고 보행자 자동차 사고 대상자가 사망한 거나 부상한 거 다 합계해서 나온 수치라고 봐야 되겠죠

교통안전계장) 네

김진혁 위원) 주로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건가요

교통안전계장) 이륜차 같은 경우는 뒤에 탄 분이나 운전자 둘 다 위험한데 거의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김진혁 위원) 어쨌든 이륜차에 탑승한 사람이 주로 많이 다친다는 거네요

교통안전계장)네

김진혁 위원) 보행자라든가 다른 차에서 다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건가요

교통안전계장) 네, 이륜차 뒤에 탑승한 사람이 사고가 많은 이유가 안전장치가 없어 브레이크를 밟아 버리면 부상의 정도가 보통 골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륜차에서 더 많이 다칩니다.

김진혁 위원) pm도 주로 운전자가 다치나요

교통안전계장) pm은 2인은 원래 타지 못하는데, pm도 뒤에 안전 장치가 없고 사람을 그냥 손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탄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정 위원)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요즘 현상을 보면 pm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인도, 차도 옆에 무분별하게 pm이 보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법규적인 정비나 대책이 있나요

교통안전계장) 지난해부터 일선 일반 대학이라든지 대학 주변에는 보관 장소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내 이륜차 pm은 지금 44개 업체에 지금 한 5,300여 대가 있어서 조금씩 마련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규학 위원) 이륜차 사고 중에 사망자나 부상자에서 노인층은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안전계장) 통계를 전부 내지 못하였으나 노인 사망 사고도 거의 절반 이상을 16명 중에서 차지합니다.

한규학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층은 주로 안전장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계장) 저희들이 이 교통안전공단하고 해서 안전모하고 농협이라든지 해서 안전모를 노인들한테 이렇게 좀 무상 지급해서 무상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pm 분석 결과 이제 보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행 사고 현황 및 분석에 대한 보고입니다.

5. 최근 3년간 보행사고 현황 및 분석

-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장

교통안전계장) 최근 3년간 보행사고 현황 및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분석을 요청 하여 통계를 내게 되었는데 유의미한 분석을 하게 되어 사무국장님께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20년부터 22년까지 보행 교통사고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망자 수를 먼저 보면은 85명에서 2021년 94명 2022년 88명 약 85명 평균 3개 하면 평균한 90명 정도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고 저희 사고 건수는 보면 한 6,400여 건의 사고가 3년째 발생하고 있고 통계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신선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2100여 건 또 마찬가지로입니다. 2021년 2022년 2100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부상도 보면은 2100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통계가 2020년 21년 22년에서 부상자는 2천여 명 사고 건수도 2100여 건 사망도 85건에서 많게는 904건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12세 이하도 있고 13세 미만이면 어린이를 합니다. 3년 동안 60세 이상은 163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은 2054명, 근데 그다음에 사망 인원이 많은 게 51세에서 60세가 60세가 48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은 119명입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65세 이상이 39명 그다음에 부상도 제일 많고 51세에 60세가 제일 많습니다. 2021년도 63명 2021년도 61명입니다. 2020년도에 65세 이상 39명을 제외하고는 60년대 60명대가 넘습니다. 21년 22년도 보면은 51세에서 60세가 23명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사망 사고가 보면 12세 이하가 3명인데 20년에 1명 김해 서부에서 신호 위반으로 신호위반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님니다마는 신호위반 사고로 1명이고 2세입니다.

21년도에는 21년도에도 1명, 22년도에는 1명 택시입니다.

택시가 창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건너는 학생들을 가지고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연령대별은 분석이 이렇습니다.

뒷장입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이 분석을 3년치를 해보면서 18세에서 20시 사이가 22.1%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6시 8시 06시 080 한 12% 정도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고 20년도 21년 22년 각자를 보더라도 20년도에 18세에서 20시가 28명 28명 그다음에 21년도 한번 보시면 21년도도 18세에서 20시가 17명이 제일 많고 22년도에도 18세에서 20시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6시 8시간 6시 08시가 많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20시 18시 20시가 많은데 06시 08시에는 일출 시간대 시인성이 낮을 때 발생합니다. 18세 20세도 20세도 마찬가지로 시인성이 낮은 시간대에 사망사고가 보행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12시 14시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졸음 운전이 기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장소별 보행 사고입니다. 횡단보도내가 72명인데 그 외에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도 통행, 보도 통행, 길 가장자리 통행, 도로 위 작업입니다. 그중에서 보행 사고 3년 267명 중 횡단보도 외가 91명입니다. 3년 연속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입니다. 관서별 사고는 보행 교통사고 정확한 분석은 다음 회의에 저희들이 각 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분석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김해 중부, 진주 양산에서 1급지 경찰서가 대부분 관서의 보행 교통사고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일단 분석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하셨네요

황문규 상임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요청

한 목적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통계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기 쉽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시간대별 보행 사고 사상자 중, 새벽 4시에서 6시, 6시에서 8시, 오후 16시에서 18시, 18시에서 20시, 이렇게 4개에 대해서는 사망자, 부상자가 횡단보도 외 4명인지, 도시 지역인지 농촌 지역인지, 시군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대에서 사망자 부상자의 수가 연령대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가 총 사망자가 32명이면 여기서 또 연령대로 구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나오면 저희들이 관계 기관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진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통안전계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학 위원)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별 분석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통안전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혁 위원) 질문 있습니다. 통계에서 연령대를 10년 단위로 나눴는데 왜 굳이 60대에 가서는 61세에서 64세, 65세에서 69세까지로 세분화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신체 나이와 사고 대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면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서별 보행 사고 현황을 보게 되면 진주, 김해 중부 등에서 높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도로상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안전계장) 진주 같은 경우는 1급지 중에서는 직원 500명일 정도로 인구수가 많을 뿐더러, 도로망이 진양하고 진주하고 해서 국도하고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망 사고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해 중부, 양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김진혁 위원) 60대에서 5년 단위로 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통안전계장) 사무국장님이 주는 양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65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황문규 상임위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60대는 나이를 세분화 한 것입니다.

김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계장) 혹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노인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3급지 1, 2, 3, 4월은 관리가 잘 되고 했는데 5월달에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3급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112실장, 교통 생활 교통 기능 과장 계장에서 간담회에서 취약 요인이 파지를 주으려 간다든지 시골에 갭이 깊고 운전해 가는 노인들에게서 높아서 교통 조끼를 조금 배부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윤창수 위원) 2014년도 쯤 홍준표 지사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도내 전체 65세 이상 노인 15만 명인가 전체 야간 조끼를 배부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도에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통 경찰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내밀하게 분석하고 되도록이면 간부급이든 지방청에서 직접 현장도 나가봐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최소한 유사한 사고는 다시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경 담당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경찰청 담당자 퇴장

위원회 심의(4건)

1. (가칭)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자치경찰총괄과 청렴감사담당

위원장) 안건 제24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회의자료 17쪽, 안건 제24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내부의 유사한 성격의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를 (가칭)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11월, 도 소속 위원회 정비에 관한 도지사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비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위원회 내부의 유사하고 중복적인 기능을 가진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를 (가칭)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단은 2명의 당연직 위원과 9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추진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1기의 경우 오는 7월 말부터 1년간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 과정의 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치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위한 정책 발굴 내지는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니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통합하게 된 것입니다.

한규학 위원) 기존 위원님들은 다 해촉을 하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7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한규학 위원) 그중에 다시 연임하는 위원들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홍보 차원에서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할까 합니다.

한규학 위원)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자치 경찰 위원님들의 추천은 안받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위원님들 추천도 받습니다.

한규학 위원)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규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자문단이 잘 구성이 돼서 자치경찰위원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수 위원) 실제적으로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었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책자문회의위원회는 1년에 최소 두 번, 정책연구회는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인해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혁 위원) 정책연구위원회는 이제 연구 과제 설정 발굴 조언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쪽 인사가 필요하고, 자문위원회는 실무적 경향이 있는 법조인 얘기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자문위원단으로 가면 향후 이제 연구 과제 발굴 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구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학계라든가 법률 전문가를 구성 해서 비율을 잘 맞출 계획입니다.

황문규 사무국장) 보충 설명 드리자면 우리 김진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목적 때문에 두 개를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따로 운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지사의 지시도 있었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우리 김진혁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연구 측면에서의 자료는 개별 전문가들이 교수님들에게 직접 해 있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위원회 명칭은 위원님들께서 추천 해주시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임기를 3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특히 이제 1기의 경우에는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납니다.

김주열 위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나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그게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주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의 없으십니까?

이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고 답변

위원장) 의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경찰청 공약과제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 자치경찰총괄과 청렴감사담당

안건 제25호 「경남경찰청 공약과제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회의자료 제19쪽입니다. 안건 제25호, '경남경찰청 공약과제 특별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명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공약과제 특별승진과 관련하여서는 6. 21.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안건과 관련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도경 수사부 및 112상황실 특별승진 공적심사에서 선발된 20명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심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7월경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할 계획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된 선발인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자치경찰부 소속 계장 2명을 추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추천 대상자는 제21쪽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학 위원) 대상자 두 명 다 심사 위원회에 들어가는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고규정 위원) 특별 공약이 어떤 공약을 말하는가요

자치경찰총괄과장) 경남경찰청장이 2023년도에 특별 과제로 선정한 주제에 대해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의담당) 특별 공약은 마약이라든지 수사 분야에 있어가지고 공약을 내서 순위를 점수를 내는 것으로 수사부에서 최초로 계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사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심사 내용에는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20명을 선발했는데 저희는 후보자의 승진에 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이제 파악하는 그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고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혹시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 안에 대한 가결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이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고 답변

위원장)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3. 6. 30. 자치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 자치경찰총괄과 청렴감사담당

위원장) 다음 안건 제26호 2023년 6월 30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회의자료 제22쪽, 안건 제26호, 2023년 6월 30일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8항에 따라 도경찰청장이 추천한 2023년 6월 30일 승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임용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임용 대상자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에 따른 승진후보자 19명으로, 경사로의 승진자 13명과 경장으로의 승진자 6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3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규학 위원) 승진 임용안에 대해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고규정 위원) 네 과장님 다음에는 승진 비고란에 시험, 심사 승진 여부를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고로는 제가 구분을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확대

- 자치경찰총괄과 청렴감사담당

위원장) 안건 제27호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확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회의자료 제26쪽, 안건 제27호,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확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추진 중인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모호한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선에 LED 표지병을 설치하는 ‘시외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4일 소방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였고, 또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23일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개 시군에서 11개 사업지를 신청받았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자료와 같이 ‘시외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확대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주시시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을 마치고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방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아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주열 위원) 인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led 표지병이든 뭐 이렇게 표지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인도 구분도 좀 생길 수 있는 형태인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일부 도로 요건에 따라서 그런 효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지를 설치를 할 것인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표지판 자체는 도로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김주열 위원) 그럼 차도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그렇게 구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좁아 지지 않는 걸로 봐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발광을 하기 때문에 도로와의 어떤 부분 경계도 되지 만 또 사람에 대한 인식도 좀 더 좋아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네 그럼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원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모두 없다고 하므로,

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월 네 번째 월요일은 7월 24일이 되는데, 위원님들은 일정이 어떻게 되 시는가요

이때, 위원들과 의논하고,

그럼 7월 정기 회의는 7월 17일 16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 바랍니다.

이상 6월 정기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